

## XII.e 국제 해운

2010년 현재 우리나라 해상부문의 국제화물 비중은 99.7%(9억 7천만톤)로 국제화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며, 국제여객에서는 6%(2백 8십만명)으로 주로 화물수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.

2011년 국제해사기구(IMO)는 선박 온실가스 배출 감축안을 채택했다. 이는 2013년 1월 이후 건조되는 선박에 에너지효율설계지수\*(EEDI, Energy Efficiency Design Index)가 적용되는 것으로 13년 이후 12년 동안 10%씩 3번 감축해 기준대비 30%의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기대되고 있다.

자료는 2011년 교통물류 온실가스 조사 보고서, Energy Technology Perspectives 2012(IEA) 등을 반영하여 작성했다.

\*EEDI: 1톤의 화물을 1해상 마일 운송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

### Level 1

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09년 대비 31%가 증가한다.

### Level 2

레벨 1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7%를 감축한다.

### Level 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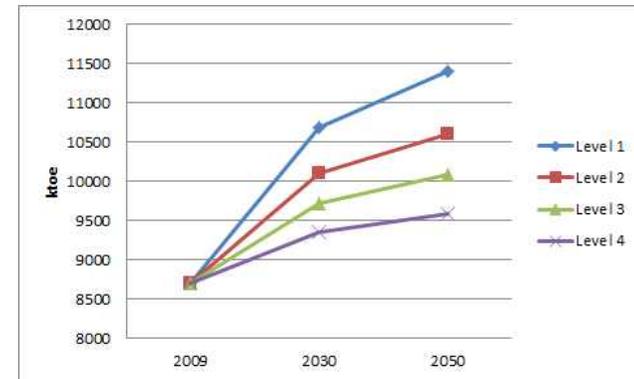
레벨 1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0%를 감축한다.

### Level 4

레벨 1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6%를 감축한다.



<그림 1>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추진되고 있음. ©한겨레



<그림 2> Level에 따른 국제해상 에너지 소비